

(작년 1321건)

## 기업 회생신청 급증 3년새 2배로 늘었다

작년 파산신청도 2282건 최고치  
유동성 관리-경영 효율화 등 실패  
올해 1~5월 벌써 1000건 넘어서  
“고환율-고금리 지속… 내실 강화될”

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29년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수가 3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의 파산 신청도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해는 연간 2500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7~12월)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서둘러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개선하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 단계에 앞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1321건으로 2022년(661건)의 두 배로 뛰었다. 올 1~5월에는 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어났다.

회생절차 이후에도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이 회

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1년 4개월 만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 원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기업들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경영을 효율화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업의 파산 신청도 2282건으로 2022년(1004건)의 2.3배로 늘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1~5월에는 10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0% 늘었다. 현재 속도로 파산이 신청되면 올해 연간 파산 신청은 2500건을 넘어설 수 있다.

파산은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선고한다.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건 스스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도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줄이 말랐다는 의미다.

부실기업이 늘면 청년 고용이 감소하고 직장인들이 지갑 열기가 힘들어지니 소비가 위축되기 쉽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기업들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재무 상황과 미래 전망, 투자 환경 등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장에 투명하게 밝혀야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구 warum@donga.com](mailto:warum@donga.com)·최미승 기자

▶A6면에 관련기사



美 건국 250주년 사상 최대 85만 발 불꽃쇼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4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몰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한 후 85만 발의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참석자 시인들은 'USA'를 연호했다. 워싱턴=AP 뉴스

## 트럼프 “건국 250년 美,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국가”

“美 황금시대 시작” 보수결집 나서  
李 “한국, 美 여정의 소중한 동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고,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가 미국을 닮으려 하지만 누구도 미국처럼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날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 리시모어산

에서 열린 전야 행사에서도 “미국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식과 전야 행사에서 모두 미국의 위대함을 부각시킨 것을 두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보수 진영의 결집 등을 의도한 발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는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야당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행사 때 통합보다는 분열을 강조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이 애국적 불거

리와 선거 유세식 정치를 결합해 시민 모두의 기념행사를 자신의 리더십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를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주는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mailto:niceshin@donga.com)

▶A2면에 관련기사

## 성장률 1.1%→2.5% 뚫는데 고용은 뒷걸음질

성장 대비 고용 증가율 8년새 최저  
청년층에 충격 집중… “양극화 심화”

경제 성장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인 고용탄성치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일 높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0.23~0.24로 예상된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증가 폭이 작다는 의미다.

KDI는 올해 5월 ‘상반기(1~6월) 경제 전망’에

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전망했다. 한은 역시 비슷한 시기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을 각각 2.6%, 0.6%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1.1%)의 두 배 이상으로 뛰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0.7%)보다 0.1%포인트 하락한다. 그 결과 고용탄성치는 2018년(0.13)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다.

고용 없는 성장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 세대, 지역 등 한국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mailto:soon9@donga.com)

▶A10면에 관련기사

## 강훈식 “추가세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에 써야”

李정부 2년차 맞아 본보 인터뷰  
“원전 건설기간 단축 논의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5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한 기금을 전력·용수 공급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념에 파묻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축이 예정된 원전의 경우 보통 7~9년 이 걸리는데, 기간을 어떻게 줄일 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의 대폭 확장이 필요하다”며 “그게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 정보화

사회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이 총집결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 “7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 차 당정 관계에 대해서 “당정이 같이 일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mailto: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귀머울

# 시 국산보청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 전화, 대화 잘 들리고 가격부담 적은 귓속형 국산 보청기를 보내드립니다.

난청은 뇌의 청각중추영역에서 어음의 인지도능력이 떨어져 발생한다. 한편 저하된 어휘변별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난청임을 느낄 때 바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신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국산보청기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빠른 피드백 분석기로 불편한 피드백을 제거해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를 출력하고, 48채널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고음질의 사운드 필터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우수한 사운드로 잡음을 줄여 가족과의 대화나 TV소리, 전화소리, 교외나 성당에서 설교와 강론도 깨끗하고 또렷하게 듣는 제품이다.

17년 내내 같은 장소, 총정료액 4번 출구로 위치한 HC바이오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HC 귓속형 국산 보청기는 작은 크기에 또렷하고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보청기 사용자가 편안하게 듣고 향상된 말소리 이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TV 전화, 대화, 강의가 또렷하게 잘 들리고, 가격 부담이 적고, 80~90대 어르신도 쉽게 사용하는 귓속형 보청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 출력은 물론 하이브리드 소음관리, 하이브리드 사운드 프로세싱, 하이브리드 피드백 제거, 말소리 밸런스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다.

수도권은 방문해서 충분히 체험 후 구입하면 되고, 방문할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방문체험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드리며, 방문체험 신청 할 여건도 안되시는 분은 무료체험 신청을 하면 귓속형 보청기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무료체험 신청을 하세요!

제품문의 : 1566-0517

귀 잘안들리는 분이나 부모님이 안들리시는 분은 지금 무료체험 신청 하세요!

### 17년 내내 무료체험 하는 장소

어르신들...

수도권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저희 직원을 지택으로 방문시켜서 TV소리, 전화, 가족간의 대화 등 충분히 체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단, 직접 체험하시고 구입하신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평일 : 6시 까지    ■ 토요일 : 1시까지

지하철 2호선 총정료액 4번출구 나와 첫 빌딩 세트빌타워 303호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① 보청기를 파손하지 않아 주십시오.  
② 2~3일 체험후 택배로 보내 주십시오.  
③ 텍스 포함 부품을 훼손하지 않아 주십시오.

충청로 사거리    시청역 방면

HC 보청기

AI 인공지능

48채널

고성능 마이크2개

블룸 소리조절 자유자재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HC바이오텍**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역삼동) 303호

▶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32023-GN1-41-0020  
▶ 접수번호 : 2023-04549  
▶ 제조원 : 디만트 코리아(주) 판매처 : (주)HC바이오텍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 3~12개월 할부 가능  
※ 농협 301-0214-3526-61  
<예금주 : (주)에치씨바이오텍>

구입문의 **1566.0517**